

특검으로 가는 '최순실 국정농단'

민주당 요구에 새누리 "수용"... 여야 곧 협의 나설 듯
국민의당 "정략적 호도 안돼"... 검찰 수사 보며 결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특별검사제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이 특검제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시행된다. <관련기사 2·3·4면>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는 즉각 사정 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 주기 바란다"며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송환,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도라인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뒤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관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최 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최순실 특검'은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공식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인 개편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승인했다고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진척을 보며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1·2당이 특검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당도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박지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 불가능하며, 최순실은 해외 도피로 설사 인터폴에 수배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시일은 흘러간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미르·K스프츠재단' 사건을 접수한지 27일 만에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순실 나와라" 26일 청와대 입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각 단체들의 최순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위쪽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참여연대 회원, 이화여대생들. /연합뉴스

제1회 운동주서시문학상 이경림 시인

광주일보·'시산맥' 공동 제정
해외작가상 김미희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최연홍 시인



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동주서시문학상에 선정된 이경림 시인은 1989년 '문학과 비평' 불호로 등단해 시집 '토씨찾기', '그곳에도 사귀려는 있다' 등을 펴냈다. 한편 운동주서시문학상과 함께 제정된 운동주서시해외작가상 첫해 수상자로 미국의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희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수선집 그늘!'의 4편이며 상금은 300만 원이다. 또한 해외에서 운동주 시인을 가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문인에게 주는 운동주서시해외작가특별상(상금100만원)에는 위싱턴에 거주하는 최연홍 시인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내달 26일(오후 5시 30분) 동국대학교 중앙당에서 개최된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광주일보와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운동주서시문학상(상금 100만원)에 이경림 시인(69·사진)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행동의 길' 외 6편. <관련기사 16면>
운동주서시문학상은 지난 한 해 각종 문예지에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평판이 부끄럽지 않은 시인들을 대상으로 문학상 심의위원들이(위원장 이성렬 시인) 후보를 심의 추천했다.
이번 문학상 본심을 맡은 유안진·송찬호 시인과 고병준 평론가는 "운동주라는 이름의 주술적인 힘이 있었을까? 시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하기까

전남대 총장 후보 정병석·정성창 교수 추천

전남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정성창 교수(59·경영학부)를 제 20대 전남대 총장임용 후보로 대학에 추천하기로 했다.



정병석 교수 정성창 교수
이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 대통령이 수락하면 총장 임용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용추천위원회는 25일 밤 전체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자 3명에 대한 평가 결과, 정병석 교수 1287점, 정성창 교수(59·경영학부) 1238점, 허민(55·주한영문과 학부) 교수가 867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추천위원회는 이날 교수(851명·직원(494명)·학생(70명)·조교(20명) 등 1435명(전체 1647명의 87%)이 참여한 현장평가와 앞서 치러졌던 정책평가(181명) 평가를 더해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
임용추천위원회는 연구윤리 검증 등을 거쳐 내달 1일 정병석·정성창 후보를 임용후보자로 최종 확정, 총장에게 추천한다. 전남대 총장은 이후 현 총장 임기 만료 한 달 전인 11월 18일까지 교육부장관에 무순으로 추천하고 교육부장관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30일간의 문화 대잔치

2016
무등산
문화대잔치

2016. 10. 01. ~ 10. 30. 일
*주말 | 전국 최대의 대잔치, 명품 문화공연이 즐비한 무등산 문화대잔치
*상차 | 위대한 선봉자, 문화의 선봉자, 문화의 선봉자
*추석 | 가을의 정취를 함께 나누는 추석, 문화의 정취를 함께 나누는 추석, 문화의 정취를 함께 나누는 추석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062-232-1501
무등산 문화대잔치 062-232-1599

성난 민심 "대통령 퇴진·탄핵" 주장까지

광주·전남 지역민 분노 폭발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 요구가 광주·전남에서도 번지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노동계, 대학가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하야를, 국회를 상대로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침사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참사 관련 의혹들, 백남기 농민 사망을 부른 공권력 오남용과 부검 논란 등 거듭된 실정으로 성난 지역 민심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26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박근혜에게 일임했던 국가권력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자 한다"면서 "박근혜는 자진 사퇴하고 국회는 탄핵을 추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와 5·18 기념재단도 이날 오전 긴급 성명

을 통해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낭독한 5·18 기념사가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사전에 건네지고 수정된 사실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 등 5·18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정부의 배후에 비선 실세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민주주의광주행동(광주시민단체 연대)도 27일 오전 광주 금남로 5·18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주말인 29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들의 분노도 폭발했다. 학생들은

비선 실세의 딸이 이화여대에서 누려온 온갖 특혜를 목격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이 국정을 거의 통째로 최순실씨에게 넘겨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대통령 퇴진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하루만 해도 박 대통령의 모교 서경대, 경희대, 이화여대, 부산대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내렸고,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생들도 27일부터 가세할 예정이다.
노동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관계자는 "중앙 차원에서 탄핵 요구 및 퇴진 운동 등 내용과 방식이 결정되면 함께 거리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

www.s-class.co.kr

2016년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수상
2015년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2014년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수상

단지 바로 앞 초·중교! 중소형 명품 대단지!
명품 주거문화의 절정

순천 신대지구 B2-1 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10월28일 OPEN (예정)

오пени엄王大박 이벤트!

- 오픈 3일간 매일매일 선착순(100명) 사은품 지급!
- 王大박 첫째날 10월 28일(금) 오후4시
김사정장교, 황규영씨, 진용형씨가 진행하는 '만남, 사랑, 힐링'을 주제로 '첫째 날' 특강, 신원인 박스 등
- 王大박 둘째날 10월 29일(토) 오후4시
LED-TV, 황규영씨, 진용형씨가 진행하는 '만남, 사랑, 힐링'을 주제로 '둘째 날' 특강, 신원인 박스 등
- 王大박 셋째날 10월 30일(일) 오후4시
명문대학교, 황규영씨, 진용형씨가 진행하는 '만남, 사랑, 힐링'을 주제로 '셋째 날' 특강, 신원인 박스 등

초·중교를 한 걸음에 누리는 명품 대단지!
순천 신대지구 B2-1 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명품 교육 | 단지 바로 앞 신대초·중교! 2017년 9월 예정! 송평중교를 도보로 누리는 안동초등학교
명품 자연 | 단지 인근 생태회랑 길, 공원, 골프장 등 풍부한 녹지가 형성된 쾌적한 에코리프
명품 생활 | 중상층지구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 입주 후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리는 생활특권
명품 설계 | 전세대 남향위주 단지배치, 테이퍼형 물놀이터, 실내워터파크 등 특화된 커뮤니티

59m²A·B / 74m²/ 84m² 총 1,464세대

문의 061) 727-1000

중흥개발 중흥건설